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음

제목 : (5월 가정의날 우리 가족과 함께
등산하기)

나는 차를타고 청계산에 도착했다. 나는 가슴에
851이 적혀 있는 걸달았다. 그리고 손목에
팔지를 달았다. 그리고 우리 바로 앞에 "한"이
적혀 있었어. 우리 손으로 한을 찍었다
(물감으로) 그리고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호수를 보았다. 가다 보니까 지점에 다달았다.
나는 그지점 가는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말았다. 한 오는 데도 시간이
걸려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앞에
도착지점을 보았다. 나는 도시락을 먹고
차에 타서 집에 갔어. 힘들기도 했지만 참
재미있었다.